

지엠, 불법파견 숨기고 노조파괴하려 하청노동자 해고? 금속노조 “GM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철회해야” ... 고용승계·물류센터 직영화 촉구



금속노조가 한국GM의 세종중앙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를 규탄하고 나섰다. 해고 철회와 물류센터 직영화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엠은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원청에 대해 세종물류센터 불법파견 은폐와 노조 와해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구진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지엠 원청은 세종물류센터 고용을 승계해 왔으나,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업체와 계약 해지했다. 노동자 120명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라며 “명백한 불법파견 은폐이자 한국지엠 자본의 기획된 노조 파괴, 보복해고”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는 2003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하청 업체를 변경해도 하청 노동자 고용승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7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갓 들어온 노동자도, 근속 20년도 기본급 1백58만 원을 받는다. 연차 휴가 사용을 업체가 강제하고, 잔업을 억지로 시켰다. 노동조합을 세운 노동자들은 법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사측 거부에 파업을 예고했다.

지엠부품물류지회가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기 위해 한국지엠 원청을 상대로 같은 해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국지엠 원청 임원이 직접 지회를 만나 발탁 채용 계획을 알리며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섰다.

지회가 노동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등을 교섭장에서 정리하자고 재차 요구했으나 한국지엠 원청은 차일피일 미뤘다.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물류센터 운영업체(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하청 업체는 폐업을 이유로 노동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형주 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부지회장은 “노동자들은 지엠이 만든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돌아온 것은 노사 대화가 아닌 조

합원 전원 해고였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와 정치권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부지회장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라 진짜 사장인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지엠 자본이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서 이번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법 2조 개정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노조법 개정이 그저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노형주 부지회장은 한국지엠 사측에 ▲해고 철회 ▲지엠세종중양물류센터 직영화 ▲불법과건 사과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노 부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집단해고 즉각 취소하라. 금속노조와 만나 고용승계, 정규직 전환 방식, 시기,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조합원 전원 해고 이후 새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고용승계는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승계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업체가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 직후부터 입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원청의 노조 외해 기획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12월 29일 세종물류센터 앞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에서도 1월 6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2026년은 원청교섭 쟁취, 산별교섭 쟁취, 비정규직 철폐 원년”

금속노조가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교섭 구조 확립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운을 띄웠다. 자본이 트럼프 관세 정책과

산업 위기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작년 말 120명 전원 해고라는 보복을 당한 지엠부품물류지회를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무기한 총파업과 본사 천막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 선하청지회와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원청의 행태를 꼬집으며, 20년의 투쟁의 결과인 노조법 2·3조가 온전하게 개정되지 못한 현실과 시행령 뒤에 숨어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법으로만 쟁취할 수 없다. 투쟁으로 쟁취해 왔고, 투쟁으로 지켜왔다”며, 금속노조는 2026년을 원청교섭 쟁취, 산별교섭 쟁취, 비정규직 철폐하는 원년 해로 만들겠다는 힘찬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